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on Adolescent's Self-Efficacy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 사 신 향 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 수 장 윤 옥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 Shin, Hyang Su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Jang, Yoon Ok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on adolescent's self-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25 students selected at random from first and second grade of high school in Daegu.

A questionnaire was used as survey method. Factor analysis, MANOVA and cluster analysis for data analysis and Scheffé test for post-hoc analysis were employed.

The main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adolescent's self-efficacy according to perceived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In case that adolescents perceived their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s reasonable, the degree of self-control, self-confidence and attribution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cases such as non-

interferential or impulsive communication style. The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s reasonable showed higher preference of difficult task than those who perceived it as non-interferential style. The adolescents who perceived father's communication style as reasonable and non-interferential showed higher attribution than those who perceived it as impulsive styl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adolescent's self-efficacy according to perceived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In case that adolescents perceived their mother's communication style as reasonable, the degree of self-control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cases such as non-interferential and impulsive communication style. The adolescents who perceived their mother's communication style as reasonable showed higher self-confidence than those who perceived as impulsive style.

◆ 주요어: 부모-자녀관계, 의사소통유형, 자기효능감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 자녀들은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발달로 인한 불안과 긴장,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에는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시기의 자녀들은 독립적인 자기 주장이 발달하여 자립과 자율을 추구하는 반면에 부모는 부모대로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과업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부모의 입장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누적·심화되기도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자녀 관계가 기능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협하는 심각한 가족문제가 야기된다.

부모-자녀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결속을 강화시키는데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상호작용적 과정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므로 이들간에 기능적이고 원만한 관계가 성립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자녀간의 연대성과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

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들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정나영·이정숙, 1999).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이 가치있고 보다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므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김순옥, 1995)이라고 하겠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있어 부모가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경화, 1989)고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것을 부모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회유적인 의사소통은 비록 청소년기 자녀의 문제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김경화, 1989) 하지만 부모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화제를 자주 바꾸며 일관성이 없는 말을 하는 비난·산만형의 의사소통과 마찬가지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증가시킨다(신일진·김태현, 1991)고 한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개방적이고 일치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갈등을 감소시키고(신일진·김태현, 1991),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며(장윤옥·전귀연, 1998)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균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므로(박은주, 1994)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기능

적이고 만족스럽게 하는데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매우 중요하다(김오남·김경신, 1994)고 하겠다.

한편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성취적, 자율적, 그리고 친애롭다고 지각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도 높으며(이동영, 1997),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높고,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낮다(박영애·정옥분, 1996)고 한다.

자기효능감이란 인간의 행동 변화에 있어서 강력한 결정요인이고(문혁준, 1999) 특히 청소년 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이 시기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우희정, 1992).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형성·발전시키게 되고(Bandura, 1986) 가정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에 영향을 미친다(문혁준, 1999). 다시 말하면 부모는 자녀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차적인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우희정·이숙, 1994).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성취감을 부여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허용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자녀는 자신이 계획된 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된다(이동영, 1997).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사실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감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불안정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되는 등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게 된다(전세남, 1989).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이고(문혁준, 1999) 부모의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을 통해 나타난다(박경관·장현숙, 1999)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

어지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서로 다르게 형성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문혁준, 1999; 윤병두, 1995; 이동영, 1997)는 다수 있으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부모-자녀간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유형을 알아 보므로써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고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녀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의사소통방법을 제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감정적, 합리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효능감(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 :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사소통유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비난·산만형, 일치형, 계산형, 회피형, 회피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사소통행동을 선택·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한 다음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들을 감정적, 합리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으로 명명·분류하였다.

(1) 감정적 의사소통유형 : 주로 비난·산만형, 회

유형, 회피형의 의사소통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때로는 남을 무시하고, 독선적, 명령적, 지시적이며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과 책임 없는 말을 하며,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의도대로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의사소통유형을 의미한다.

(2) 합리적 의사소통유형 : 주로 일치형, 계산형의 의사소통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의사소통유형으로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합리주의를 추구하며, 원만하고 책임감과 친근감이 있으며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사소통유형을 의미한다.

(3) 방임적 의사소통유형 : 계산형, 비난·산만형, 일치형, 회유형, 회피형의 모든 의사소통행동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의사소통유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 자체를 방지하거나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의사소통유형을 의미한다.

2) 자기효능감(self-efficacy) :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뜻한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1) 자기조절감 : 무슨 일이든 정확하게 처리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판단·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기대를 의미한다.

(2) 자신감 :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3) 과제난이도 선호 :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려는 과정을 의미한다.

(4) 귀인 :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적 지각을 의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구성원들 사이의 협동을 통한 사회유지의 기능이라 할 수 있고(차배근, 1982), 인간은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과 관련을 맺을 때 비로소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장명욱, 1997).

의사소통유형은 의사소통이 반복됨으로써 나타나며 경로, 메시지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Satir(1972)는 수많은 의사소통행동을 관찰한 후 일치형을 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으로, 회유형, 비난형, 계산형, 산만형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해서 이상순(1988)은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일치적 의사소통유형으로, 김경화(1989)는 비난형, 평가형, 산만형, 회유형으로, 김득성·김정옥·송정아(2000)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및 산만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게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무조건 동의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사소통행동을 회유형(placating), 내면적으로는 외로움과 패배감을 가지고 있으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강자같이 행동하고 남을 무시하는 의사소통행동을 비난형(blaming)이라고 한다.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약해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쉽지만 자신의 정서적 감정을 잘 숨기는 편이며,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주로 부정적인 측면의 언어를 사용하는 의사소통행동을 계산형(computing) 혹은 초이성형, 주위 사람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욕구를 무시하며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하는 의사소통행동을 산만형(distracting), 그리고 개인의 독자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며, 변화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의사소통행동을 일치형(leveling)으로 분류한다.

한편, 권미연(1997)은 의사소통유형을 서로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족 상호간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인 개방형과 이와 반대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

통유형인 비위맞추기형, 회생형, 불성실·음박 및 평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약물중독 청소년은 약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청소년이나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중 부모의 불성실·음박 및 평가형의 의사소통을 많이 하고, 비효과적인 가족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약물개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역기능적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나아가 비난하고 창피를 주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의 약물문제를 더욱 지속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신일진·김태현(1991)은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권위형,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비난형,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는 불성실형,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경향이 있는 희생형을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으로, 상대방에게 우호적이고 사교적인 행동을 하는 친밀형을 기능적 의사소통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권위형과 불성실형의 의사소통유형이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증가시키며 친밀형의 의사소통유형은 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김순옥, 1995; 윤혜경, 1990; 이석경, 1987) 자녀의 연령, 부모의 소득, 직업, 대화시간, 대화욕구 등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순옥(1995)은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아버지의 직업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는 의사소통의 개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석경(1987)에 의하면 청소년은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아버지와 대화시간이 많지는 않으며, 윤혜경(1990)은 아버지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만족도가 자녀의 효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금(1993)은 부모-청소년자녀간의 의사소통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 부드러운 표정과 웃는 얼굴을 짓는 등 우호적인 비언어적 표현과 더불어

긍정적인 대화를 할 때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만족도가 증진된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칭찬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일관성 있는 바람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청소년기 자녀의 발달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하겠다.

2. 자기효능감

인간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최근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가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86)이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네 가지 하위영역인 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으로 구분할(Bandura, 1993) 수 있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중요한 결정을 수행하고 기술이나 수행의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진행중인 행동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한 이동영(1997)은 자기효능감을 활동시작능력기대, 활동지속능력기대, 활동수행능력기대, 혐오경험극복능력기대라는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고, 아동기의 부모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혁준(1999)과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연구한 차정은(1997)은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의 4가지 하위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연구한 우희정(1994)은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인지적 능력과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인지적 요인, 동료 또는 이웃과의 사회적 상황에서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에 맞게 정서를 표현 또는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사회정서적 요인, 그리고 신체적 능력에 대한 효능감을 신체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동에게 있어 최초의 효능감은 가족 내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우희정·이숙(1994)은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내적 요인은 학교와 사회환경 보다는 가정환경인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바람직할수록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한다. Turner와 Harries(1984)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능력이나 자아개념이 달라지게 된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경험은 개인의 효능감 발달에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며, 연령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발달하는 자기효능감은 한 번 형성되면 다른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도 전이된다(Bandura, 1982).

Schunk(1981)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이겨내려고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을 줄이고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거나 쉽게 포기하며,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선택한다고 말한다.

Bandura와 Schunk(1981)는 개인이 어떤 과제를 쉽다고 생각하고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이 형성된다고 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불충분한 노력으로 귀인하고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실패를 능력 부족으로 귀인한다고 보고한다. 또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여 모든 일에 대해 걱정과 불만이 앞설 것이며, 결국은 주어진 일을 실제보다 어렵게 생각하게 되어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점차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흐르며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지적과제의 성취와 관련지어 수행되어 왔다.

한기숙(1984)은 자기효능감을 문제해결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고, 이미숙(1994)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동은 문제상황에서 강한 자신감과 높은 문제해결력을 보인다고 한다. 윤운성(1998) 역시 학습상황속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이 입증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재민(1999)은 아동의 과제난이도 선호 수준과 자기효능감과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습활동 수행시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한 아동들은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어떤 행동을 시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은 행동의 결과에 따르는 보상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자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자기효능감 정도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3.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기까지 그 원인과 과정은 개인이 지닌 특징적 요소와 개인이 속한 환경적 요소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중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자녀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은 양육태도 가운데서 가장 잘 나타나므로(박경란·장현숙, 1999),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이동영(1997)에 의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감을 부여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자녀로 하여금 제약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도 높다고 한다. 부모의 양육방법과 학습 흥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연구한 김현순(1993)은 부모의 양육방식을 애정적, 합리적, 성취지향적이라고 지각하는 자녀들이 적대적, 타율적,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하는 자녀들보다 학습에 흥미를 더 많이 느끼고 학업성취도 더 높다고 보고하면서, 부모가 항상 애정적이고 성취감을 부여하며 합리적으로 양육할 때 자녀는 학업에 더욱 많은 흥미를 느끼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다고 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장운옥·전귀연(1998)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의사소통이 희생적이거나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한다. 또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이 불성실하고 억박지르며 평가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낮으며 희생적이거나 개방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말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박영애·정옥분(1996)은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높고,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하며, 황정해(1992)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참여도가 긍정적일수록 자녀의 성취동기가 높아지며 특히 아버지의 자율지향적인 양육행동과 생활지도에의 참여도가 자녀의 성취동기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한다.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혁준(1999)은 아동기에 부모가 자녀를 수용해주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으로 성취감을 부여하는 양육태도를 취할 때 성장 후 자녀가 높은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을 보이고, 성공을 능력에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도전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고 말한다. 또 Fauber, Forehand, Thomas, 그리고 Wierson(1990)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협동심, 책임감, 적응력, 성취감, 높은 복종 정도와 낮은 공격성,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높은

사회적 자신감, 타인의 감정에 대한 높은 민감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자아개념(Self-Concept)이나 자아존중, 지각된 능력(Perceived Competence) 등을 들 수 있다. 이 개념들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으로 자기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을 의미하여, 환경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고 경험을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사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우희정, 199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원영희(1990)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데 아동은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적으로 지각하고 덜 거부·권위주의적으로 지각할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한 김영이(1994)는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궁극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구적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용구(1992)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빈도가 많은 자녀들이 적은 자녀들 보다, 그리고 부모와 심화촉진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이 비촉진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보다 학구적 자아개념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양육태도는 의사소통을 통해 나타나므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은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유추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대구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남녀 고등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한 다음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8개교 16학급의 남녀 고등학생에게 2000년 2월 15일에서 21일 사이에 7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66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부실기재되었거나, 편모·편부 가정의 청소년이 기입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 625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의사소통유형 척도

의사소통유형 척도는 Barnes와 Olson(1985)이 제작한 부모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척도(Parent - Adolescent Communication)와 Satir(1972)의 의사소통 이론, 권미연(1997), 김경화(1989), 손연주(1997), 이상순(1998)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48문항의 의사소통행동 문항을 구성한 다음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중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거나 요인부하량이 낮은 7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41문항을 의사소통행동 문항으로 사용하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내용	인원(%)	변수	내용	인원(%)
가족유형	핵가족	566(90.6)	자녀의 성별	남	313(50.1)
	확대가족	59(9.4)		여	312(49.9)
원 소득	100만원 이하	54(8.6)	자녀의 출생순위	말이	285(45.6)
	101~200만원	263(42.1)		중간	57(9.1)
	201~300만원	190(30.4)		막내	249(39.8)
	301~400만원	82(13.1)		외동	34(5.5)
	400만원 이상	36(5.8)			
어머니의 연령	39세이하	61(9.8)	아버지의 연령	30~39세	3(0.5)
	40~49세	536(85.7)		40~49세	521(83.3)
	50~59세	28(4.5)		50~59세	101(16.2)
어머니의 학력	중졸이하	177(28.3)	아버지의 학력	중졸이하	96(15.3)
	고졸	357(57.1)		고졸	338(54.1)
	대졸	87(13.9)		대졸	156(25.0)
	대학원졸이상	4(0.7)		대학원졸이상	35(5.6)
어머니의 직업	농림어업자	13(2.1)	아버지의 직업	농림어업자	21(3.4)
	자영업	138(22.1)		자영업	289(46.2)
	임시직	20(3.2)		임시직	24(3.8)
	생산직	35(5.6)		생산직	51(8.2)
	사무직	19(3.0)		사무직	106(17.0)
	행정관리직	3(0.5)		행정관리직	39(6.2)
	전문직	10(1.6)		전문직	38(6.1)
	전업주부	379(60.6)		무직	25(4.0)
	기타	8(1.3)		기타	32(5.1)
계		625(100)	계		625(100)

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비난·산만형(15문항), 요인 2는 일치형(9문항), 요인 3은 계산형(7문항), 요인 4는 회유형(4문항), 요인 5는 회피형(4문항) 의사소통행동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의 5점에서 '항상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1점~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사소통과정에서 부모가 각 문항의 의사소통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아버지는 .67, 어머니는 .75이다.

그 다음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위의 5가지 의사소통행동을 부모가 선택·사용하는 것으로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군집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세 집단의 특성을 검토한 후 각각 감정적, 합리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으로 명명하였다.

2) 자기효능감 척도

자녀의 자기효능감 척도는 차정은(1997)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4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항상 그렇다'의 5점에서 '항상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1점~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용상 전혀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4문항을 제외시킨 36문항을 자기효능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은 문항을 검토한 뒤 요인 1은 자기조절감(15문항), 요인 2는 자신감(9문항), 요인 3은 과제난이도 선호(5문항), 요인 4는 귀인(7문항)으로 명명하였으며, 이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각 하위요인별로 각각 .

85, .81, .81, .74이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변인 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 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의 개별비교는 Scheffé의 사후검증법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의 주효과(F=6.425,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이 통계적으로

<표 2>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의사소통유형	.922	6.425	8.000	1238.000	.000

〈표 3〉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결과

의사소통유형		자기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	
		M	SD	M	SD	M	SD	M	SD
아버지- -자녀	합리적(234)	3.52 b	.45	3.11 b	.58	3.04 b	.74	3.49 b	.58
	감정적(202)	3.37 a	.53	2.84 a	.60	2.91 ab	.80	3.19 a	.70
	방임적(189)	3.29 a	.45	2.94 a	.57	2.84 a	.70	3.35 b	.56
	F값	12.516***		11.454***		4.031**		12.607***	

** p < .01 *** p < .001

* a, b는 평균이 서로 다른 집단임을 의미한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감정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조절감과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그리고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과 과제난이도 선호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귀인은 더 높은 것으로 즉, 내적통제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유형이 원만하고 친근감이 있으며, 아버지가 이성적이고 객관적 태도로 격려, 칭찬, 애정 등을 표현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신뢰를 확신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다(박영애·박옥분, 1996).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기 자녀들은 아버지와 의 의사소통유형이 자기주장이 강하고 책임없는 말을 하며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감정적 의사소통유형과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자체를 방치하거나 관계를 중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에 비해 자기효능감, 즉 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행동발달 및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서경숙(1984)의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 자율적, 애정적, 성취지향적일수록 성장 후에 아동이 높은 자신감과 자기조절감을 보이고 성공을 능력이 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 도전적인 과제를 많이 선택한다는 문혁준(1999)의 연구결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부모가 민주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때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인 목표지향성이 가장 높다는 오경옥(1986)의 연구결과, 아버지의 자율지향적인 양육행동과 생활지도에의 참여가 아동의 성취동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보고한 황정해(1992)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아버지가 자녀와 긍정적이고 친근감 넘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자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과제에 적극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로 과제를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며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2.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지각하는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다변인변량분석결과

Effect	Wilks	Apporox.F	Hypoth.DF	Error DF	P
의사소통유형	.927	6.009	8.000	1238.000	.000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의 주효과(F=6.009,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로 단변인변량분석과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박경란·장현숙(1999)의 연구결과, 부모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녀가 스스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육태도를 취할 때 아동의 자기효능감을 높게 한다는 윤병두(1995), 이동영(1997)의 연구결과들을 통해볼 때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자

〈표 5〉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단변인변량분석결과

의사소통유형		자기효능감		자기조절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		귀인	
		M	SD	M	SD	M	SD	M	SD	M	SD
어머니-자녀	합리적(185)	3.52 b	.51	3.04 b	.64	3.03	.73	3.50 b	.64		
	감정적(191)	3.34 a	.52	2.86 a	.59	2.92	.81	3.14 a	.66		
	방임적(249)	3.37 a	.43	3.00 ab	.55	2.89	.71	3.40 b	.55		
	F값	7.55**		4.936**		1.925		17.603***			

** p < .01 *** p < .001

※ a, b는 평균이 서로 다른 집단임을 의미한다.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가 지각한 자기조절감, 자신감, 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기조절감, 자신감, 귀인이, 그리고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조절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감정적,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과 자신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귀인, 즉 내적통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관한 본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애정적 양육행동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

녀에게 항상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고 성취감을 부여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자기조절감과 자신감을 높여주고 자녀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귀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수용과 관심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준다는 Lamborn, Mount, Stenberg 그리고 Dornbusch(1991)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부모가 원만하고 친근감 있는 태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수용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가 독선적, 지시적이며, 책임없는 말을 한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거부감이나 과업성취에 대한 실패감을 적게 경험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노력을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보다 확고하게 가질 수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자녀들뿐 아니라 부모가 자신과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 자체를 방치하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각하는 자녀들 역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을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자녀들에 비해 귀인, 즉 내적통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자신이 통제·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적통제성에는 부모의 거부적·독단적·지시적인 의사소통유형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는 문제상황에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장윤옥·정서린, 1998)되고 있는 내적통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책임없는 말을 하거나 지시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다르다.

즉 아버지와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감정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조절감과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서는 과제난이도 선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버지와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들은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내적통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라 자녀의 자기효능감은 다르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감정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자기조절감이 더 높은 것으로, 그리고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으로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유형을 합리적,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은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에 비해 귀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부모와 청소년 자녀 자신과의 의사소통유형을 친근·애정·수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이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을 지시적·독단적이며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감정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이나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방임적 의사소통유형이라고 지각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의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생활주기 단계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이의 발달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행한 횡단적 연구 방법보다는 종단적 연구방법이나 초등학교, 중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각 시기별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자녀의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와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가정에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자신이 상

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킬 수 있는 과정으로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가족생활에 적용가능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선 및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1년 7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8월 14일

【참고문헌】

- 고재민(1999). 아동의 학습 실패에 대한 내성과 자기 효능감과 관계. 청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미연(1997). 약물남용 청소년의 개인적·가족적·또래관계적 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화(1989).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득성·김정옥·송정아(2000). 부부 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 김순옥(1995). 10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행위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6), 1-10.
- 김영이(199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오남(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스트레스.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구(199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구적 자아개념 및 문제행동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연희(1998).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춘례(1992). 자아존중감에 따른 통제소재와 학업성취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순(1993). 부모의 양육방법과 학습 흥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라중원(1990).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혁준(1999). 아동기의 부모 자녀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지각하는 자기효능감과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9), 141-151.
- 박경란·장현숙(1999). 아동 가족 및 모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귀인성향과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7(3), 143-165.
- 박영애·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21-337.
-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손연주(1997).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심리적 특성연구 - Satir가족 치료모델의 의사소통유형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일진·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7-44.
- 오경옥(1986).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관계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우희정(1994). 아동의 자기 효능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60-67.
- 우희정·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87.
- 원영희(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병두(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

- 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운성(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분석적 고찰. *교육학연구* 36(3), 65-78
- 윤혜경(1990). 부모-자녀간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 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만족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동영(1997).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1994). 자기효능감이 수학 불안 및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상순(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행위 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석경(1987).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와의 대화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우·김규원(1989).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9.
- 장명옥(1997). 가정관리학. 서울: 교문사.
- 장윤옥·정서린(1998). 객관적 가정자원, 가정자원적 정도지각 및 통제소재와 주부의 가정자원관리 스트레스 대처방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79-93.
- 장윤옥·전귀연(199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 42, 145-166.
- 전세남(1989). 부모의 교육적 기대와 시험불안 및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나영·이정숙(1999). 아동의 행동 문제·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 및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61-71.
- 차배근(1982). 커뮤니케이션학 개론(上). 서울: 배영사.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기숙(1994). 자기효능감이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정해(199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_____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_____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3), 586-598.
- Barnes, H. & Olson. D. H.(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J.(1990). A mediational model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Lamborn. S., Mounts. N., Ste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049-1065.
- Satir, V.(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성민선·송준 역(1988). 가족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사람만들기의 가정공학-. 서울: 홍익재.
- Turner, P. H. & Harries, M. B.(1984). Parental attitudes and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44, 105-113.